

신앙 없는 신심, 신심 없는 신앙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제법 열심한 신자들이 많다. 그들 중에는 신심(信心)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심신(心身)이 좋은 사람도 있다. ‘믿는 마음(信心)’이 좋은 이들은 열심히 미사에 참석하고, 묵주기도도 자주 바치고, 기도회도 열심히 나간다. 믿음이 좋으니 세상 걱정도 별로 없다. 기도하는 영혼은 맑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心身)이 건강한 사람들도 성당의 봉사활동에는 열성이다. 굶은 일도 도맡아 하고, 시간과 재물을 바쳐 성당 일에 몰두한다. 어울려 즐거운 이야기와 술 한잔으로 나누는 정(情)도 마다하지 않는다.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보면 가끔 “나는 왜 신앙심이 약할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제법 오랫동안 성당에 다니며 성경도 읽고, 교리도 배우고, 신앙 강좌도 들으며, 나름대로 봉사도 한다고 생각하는 데 왠지 마음에 열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갖기 쉬운 오해 중의 하나는 신앙이란 마치 ‘교회가 가르치는대로 굳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한 면일 뿐이다. 신앙이란 본래 믿을 내용에 대한 동의이기 이전에 ‘누군가를 신뢰하는 인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인격적 능력’이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만나 믿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친교를 나누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신앙심은 단순히 정해진 기도와 규정된 성사생활을 열심히 하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형제 안에 살아 계신 하느님과 친구를 대하듯이 자주 만나 대화하고,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인격적인 친교를 나뉘야 한다.

그런데 신심이 좋은 사람들 중에는 인격적 친교능력이 없이 자기 신앙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의 관심과 이웃들의 어려움과는 무관하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신앙에만 열중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개 세상 것을 미워하고, 하느님께 속한 것만을 찾는 것이 이분법적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 확신하며 살아간다. 근래 보수적 근본주의 신앙으로 비판 받는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 이 경우다. 물론 천주교 신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오직 신심만으로’이다. 신앙에 필요한 세상 속의 인격적 친교와 통교 없이 오직 하느님만 찾는 열광주의나 광신의 유혹이다.

반대로 본당에서 간혹 열심한 신자들 중에는 심신(心身)이 건강해 영적인 기도와 성사 생활보다는 몸으로 뛰는 친교와 봉사를 선호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삶이 기도요, 생활이 곧 신앙이다. 본당에서 행사가 기도보다 우선되고, 능력이 신심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겨진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다. 이들에게는 하느님을 믿는 마음의 열정 없이 몸으로 부대끼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 자신의 능력이 인정 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감이 외면될 때 쉽사리 냉담에 빠지거나, 가슴 없는 발로 뛰는 신앙에 머물 수 있다. 그런 발은 내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지기 쉽다.

참된 신앙은 세상의 진흙탕을 피해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흙탕 속에서 하느님 말씀의 보화를 건지는 것이다. 또한 올바른 신앙은 내 마음이 찾아야할 하느님과의 조용한 만남과 대화 없이 사람들과의 친교 속에서만 찾는 것도 아니다. 배부르고 도전

받지 않는 교회는 신심 없는 냉소주의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배고프고 도전만 하는 교회는 배타적이고 타협 없는 승리주의에 빠질 수 있다. 참된 신앙은 이 둘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 가톨릭 교리 \*

성호경

천주교 신자들은 모든 기도와 예식을 십자성호로 시작하고 끝맺는다. 오른손 끝을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말한다. 우리는 이 기도를 '성호경'이라고 한다. 신자들은 성호경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가장 심오한 진리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한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십자가 표시가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고 생각하였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호경을 하여 하느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한다.

아 멘(Amen)

이스라엘 말로 ‘정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다. 유대인들이 제사의식에 쓰던 말 그대로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그리스도교에서는 모든 기도를 ‘아멘’이라는 말로 끝맺는다.

기도

기도는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께로 돌리고 그분을 흠송하고 감사하며 하느님께 은혜와 용서를 청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도는 하느님과 나와 의 대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세는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지향으로, 꼭 이루어지리라 확신을 가지고 바쳐야 한다.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후보성인인성 바오로 정하상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 본 당 소 식

### ◎ 제1차 사목회의 안내

일시 : 오늘 주일 미사 후

장소 : 교육관

의제 : 분과별 업무분장, 분과위원선임,  
3월, 4월(사순, 부활) 행사계획

### ◎ 예비자 모집(포스터 부착)

2월 한 달 동안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포스터 부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예비자 모집 포스터를 부착해주시고, 1년에 한 명씩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재영(바오로) 519 747 4981

고리시간 : 주일 미사 후 1시간(교육관)

### ◎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성모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월 15일부터 친교식사를 유료화합니다.

식사는 \$ 3, 커피는 \$ 1입니다.

현금은 받지 않고, 쿠폰으로 받으니 미리 쿠폰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 St. Anthony Daniel 성당 앨범제작 협조

함께하는 공동체이므로 앨범제작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개인, 가족, 단체별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자체 촬영합니다.

일시 : 2월 15일과 22일(주일) 오후 3시부터

장소 : 성당

### ◎ 올뜨레야 모임

피정 관계로 2월 15일로 연기합니다.

문의 : 김현태 요셉

◎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건함을 유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교시간에 성체조배를 하는 분들을 위해 조용히 문을 여닫고, 친교실 복도에서 정숙해 주십시오.

### ◎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재의 수요일인 2월 25일(수)부터 교회 전례력으로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시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현장이 규정하고 있듯이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제109항)하는 시기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열성으로 하느님 말씀에 기울이며 기도와 회생을 바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시기에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수난을 자주 묵상하고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회개와 보속,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순시기에 행하는 전례(재의 예식, 성지주일예식, 주교좌성당에서의 성유축성미사, 주님만찬미사, 수난예식)과 신심행사(십자가의 길, 금식과 금육), 부활성야대축일, 부활대축일 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앙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으심, 부활에서 비롯된 것이니 예식 참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 후보공지 안내

각 단체장과 사목위원들은 후보에 공지하실 사항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사목회 총무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택중(막시모) 519 883 8488

이메일 : [tj1234@catholic.or.kr](mailto:tj1234@catholic.or.kr)

### 2009년 2월 1일 현금 내역

주일현금 : \$ 695.00  
교 무 금 : \$  
소 성 당 : \$ 900.00  
성전건립 : \$ 70.00

Total : \$1665.00



## KW한인천주교회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lucasmuse@korea.com](mailto:lucasmuse@korea.com)

사무봉사자 519 894 3533

###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화(구역방문), 수 오전 10시,  
목 오후 8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09-08호

2009. 2. 8.

### 연중 제 5 주일

### 미 사 전 례

해 설 박명옥

차주 해설 이정숙

화 답 송 (성가 362)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쳐 주시도다

복음환호송 (성가 365) ◎알렐루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 주님께서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먹이시고, 배고픈 이를 좋은 것으로 채우셨도다.

### 성 가

입 당 (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봉 헌 (212) 너그러히 받으소서

성 체 (163) 생명의 성체여

되 장 (401) 주를 찬미하라

### 독 서

2월 8일 서자호

2월 15일 박용대

2월 22일 노동원

서윤희

박명옥

노성은

### 봉 헌

2월 8일 김동규

2월 15일 서자호

2월 22일 박용대

김은옥

서윤희

박명옥

### 복 사

2월 8일 구하람

2월 15일 류지홍

2월 22일 최예슬

강수현

호동

류지현

### 친 교

2월 8일 신비팀

2월 22일 영광팀

2월 15일 환희팀

3월 1일